
주담대·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방안

2024. 1.

금 융 위 원 회

I. 추진배경	1
[참고1] 현재 주담대 · 전세대출 대환시 불편 및 한계	2
II. 주담대 ·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구조 ...	3
III. 주요내용	4
1. 대환대상	5
[참고2]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이용불가 대출	6
2. 참여 금융기관	7
3. 대환채널	8
4. 이용절차	9
5. 서비스 시행시기 및 이용 가능시간	10
6.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 ...	11
IV. 기대효과	13

I. 추진배경

-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해 **개인 신용대출**을 대상으로 **대환대출 인프라** 구축·운영 중('23.5.31일~)
- 총 10.6만건, 2.4조원 수준의 신용대출('23.12.31 기준)이 보다 낮은 금리로 변경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
-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금융회사들이 대출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리를 인하*하는 등 금융권 경쟁 촉진
- * A은행 - 직장인대출 금리 0.4%p 인하, C은행 - 기존 대출고객 대상 우대금리 쿠폰 제공

【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 주요 운영성과 】

- ▶ '23.12.31일 기준, 누적 총 105,696건 및 2조 3,778억원 대출자산 이동
- ▶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평균 이자절감 폭은 약 1.6%p, 총 이자절감액은 약 508억원 (1인당 연간 기준 54만원의 이자 절감)
 - < 주요 이자절감 사례 >
 - ① 한도대출 1,500만원, 9.9% → 5.7% (은행→은행)
 - ② 일반 신용대출 8,000만원, 15.2% → 4.7% (저축은행→은행)
 - ③ 일반 신용대출 1,800만원, 16.9% → 11.9% (캐피탈사→카드사)
- ▶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대출을 갈아탄 **차주 간 대출 금리 편차 감소**(4.17%p→3.07%p)
- ▶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**신용점수 상승***
 - '23.12월 기준, 대환대출 직후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상승폭은 35점(KCB)
 - *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,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 하락은 신용점수 상승 요인으로 작용

-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거금융 상품인 **주택담보대출**(이하 '주담대'), **전세대출*** 대상 인프라 구축
- *가계대출 잔액('23.11월 금감원) : 신용대출 237조원 vs 주담대 839조원, 전세대출 169조원
- 주거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대출비교 서비스*가 미흡했던 주담대·전세대출에 대한 경쟁 촉진 효과 기대
- *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 플랫폼 수 : (신용) 29개 vs. (주담대) 6개, (전세) 2개
- 정책금융상품 등 정부 지원이 아닌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금융비용 경감을 달성

참고 1

현재 주담대·전세대출 대한 시 불편 및 한계

□ 현재 주담대·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이용단계별로 다양한 불편 사항이 존재

① (대출비교 서비스 미흡) 기존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용대출 비교 중심, 주담대·전세대출 비교 서비스가 미흡

※ (대한대출 인프라 구축 전) 대출비교 플랫폼 수 : (신용) 29개 vs (주담대) 6개 (전세) 2개

➡ 금융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, 대면상담을 통해 조건을 비교

② (대출이동시스템 미비) 기존은행은 신규은행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*를 고객 본인에게만 안내**

* 총 상환금액(상환일 기준 원리금 잔액, 중도상환수수료 등), 입금계좌 정보

** 기존대출의 상환이 고객 본인의 의사임을 직접 확인

- 한편 신규 은행은 고객의 대출금 유용*을 우려, 고객에게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음

* 신규 대출 취급 이후 기존 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DSR 규제 등 위반 가능

➡ 금융소비자는 기존은행과의 본인확인 절차(유선 또는 대면)를 거쳐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신규은행에 전달

※ 이후 신규은행 측 법무사가 대출금을 지참해 기존은행을 방문해 상환함에 따라 횡령 리스크 존재, 실제 횡령 사례 존재(대구지법, 2014가합8442 판결)

□ 또한 주담대·전세대출은 그 특성상 심사 과정이 간단·정형화된 신용대출 이동시스템 수준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곤란

○ 대출규제*·주택·임대차계약 등 검증해야 할 정보, 제출 서류**가 많아 은행 직원이 통상 2~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심사

* (주담대) DSR 외 LTV·DTI 등 적용, 규제지역 여부 및 세대원의 주택보유현황 등

** 등기필증, 임대차계약서, 전입세대열람내역서,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
○ 주담대는 주택의 실시간 시세 조회(KB시세 등)가 불가능한 경우 (다세대·연립주택 등) 실시간 대출비교, 대출이동 구현이 어려움

➡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에 비해 대환 실행 소요 시간이 길고, 대상범위가 제한적

II. 주담대 ·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구조

① 주담대 ·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기관

- (대출비교 플랫폼) 고객의 기존 대출과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금융회사들의 신규대출을 비교, 가장 유리한 조건의 신규대출 추천
- (기존대출 금융회사) 자사의 기존 대출 정보를 대출비교플랫폼 및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
- (신규대출 금융회사) 대출비교플랫폼 제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알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 제공

② 대출이동중계시스템(금융결제원)

- ① (기존 대출정보 중계)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 정보*를 받아서 대출비교 플랫폼 및 타 금융회사에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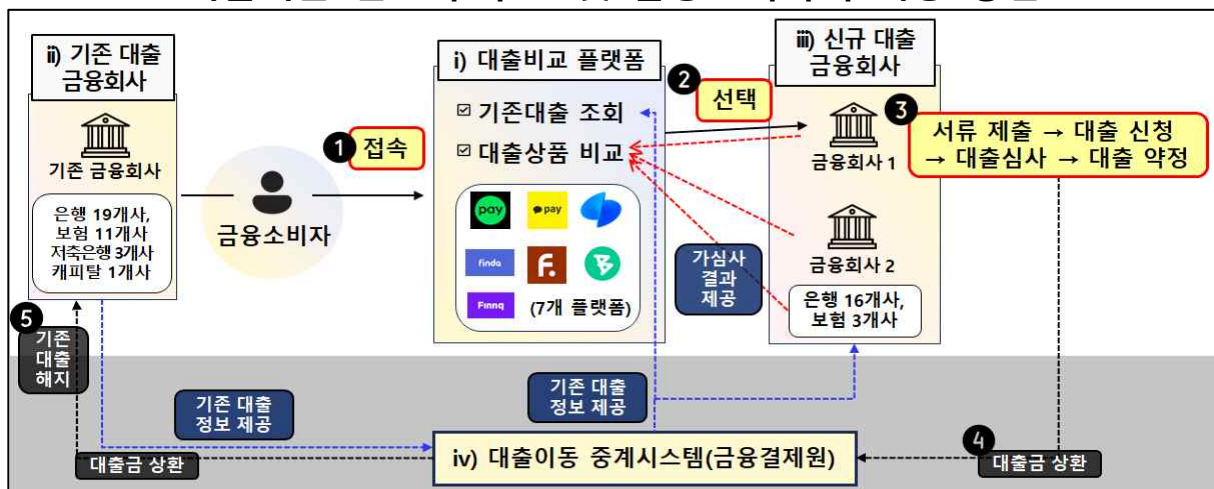
*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대출 정보

<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의 대출유형별 정보중계 항목 >

구분	제공 정보
신용대출	상환가능여부, 중도상환수수료금액
주담대	상환가능여부, 중도상환수수료금액, 금리형태, 금리형태별 부가정보(변동주기, 고정금리적용기간)
전세대출	상환가능여부, 중도상환수수료금액, 금리형태, 금리형태별 부가정보(변동주기, 고정금리적용기간), 보증기관

- ② (대출상환 중계)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처리 절차를 온라인으로 중계

< 대환대출 인프라 구조 및 금융소비자의 이용 방법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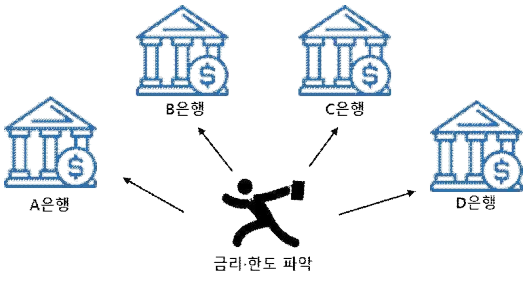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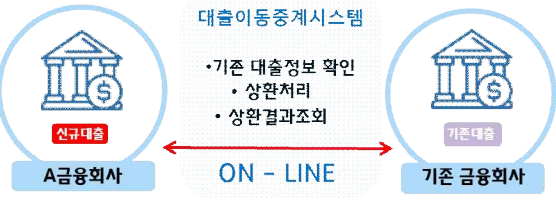
Ⅲ. 주요 내용

< 기본 방향 >

◆ 금융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대출을 손쉽게 찾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되, 가계부채 문제 등을 감안한 보완 장치를 통해 **대출시장 내 건전한 경쟁**을 촉진

- ①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·플랫폼을 최대한 확대
- ② 대출이동全过程에서 금융소비자의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
- ③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

< 참고 : 주담대·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후 >

현재	구축 이후
	
금융회사 여러 곳을 방문해 금리, 한도를 비교	앱으로 여러 금융회사 대출의 조건을 손쉽게 비교
	
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전달	금융회사 간 온라인 정보제공, 상환처리

□ **(주담대)** 아파트(KB시세,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조회 가능대상) 담보대출

- (종류) 주택구입자금, 생활안정자금* 모두 가능(가계대출)
 - * 통상 매매계약체결일 3개월 이후부터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
- (기간) 실행 후 6개월이 경과된 대출
- (제외대상) 저금리 정책금융상품, 특정 협약 금융기관 취급상품 등*
 - * (예) 주택도시기금(디딤돌대출), 주택금융공사(보금자리론) 및 중도금잔금대출 등(☞참고2)

□ **(전세대출)** 모든 주택(아파트, 다세대, 연립주택 등)의 보증부 전세자금대출

- (보증)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SGI서울보증(SGI)의 대출보증부 상품 모두 가능
 - 다만, 대출보증 기관별로 가입요건, 한도, 반환보증*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므로 대환 시에도 동일한 보증기관 이용 필요
 - * (대출보증) 임차인(차주)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환 보증
(반환보증) 임대인의 임차인(차주)에 대한 전세자금 반환 보증
- (기간) 실행 후 3개월 ~ 임차계약기간 1/2(통상 1년) 도과 전*
 - * 대출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 가입 가능기간을 1/2 이전으로 제한하는 경우 존재
 -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임차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
- (제외대상) 저금리 정책금융상품, 특정 협약 금융기관 취급상품 등*
 - * (예) 주택도시기금 대출(버팀목전세자금대출), 지역연계 전세대출(지자체 연계) 등(☞참고2)

□ **(공통)** 10억원 이하 및 정상 상환 중인 대출 등(신용대출과 동일)

- ① 10억원 초과 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대상은 거의 없는 반면*,
 - * (주담대) 10억원 이하 대출(LTV50%시 주택價 20억원)이 은행권 주담대 잔액의 98.9%(23.6.) (전세대출) 보증부 대출의 경우 10억원 초과 대출 없음(최대 대출한도 HUG 5.6억원)
 - 이동 시 발생하는 전산 부담*은 커서 시행초기 수요, 안정성을 고려 시 제외 → 추후 필요시 대상 확대
 - * 금결원 소액결제시스템(익일 차액결제)이 아닌 한국은행 거액결제시스템(실시간 총액결제)을 이용하고 제2금융권의 경우 대행은행도 경유

- ② 연체대출, 법률분쟁 상태의 대출은 대환 불가

주요 제외 대출	제외 사유
□ 주담대 관련	
주택도시기금 대출 (내집마련디딤돌 대출 등)	▶ 자격심사를 거쳐 제공되는 저금리 상품으로,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(대출비교시 오히려 고금리 대출 선택 우려)
집단대출 (중도금 대출)	▶ 시행사 등과 협약한 금융기관만 취급 가능
후취담보대출 (잔금대출)	▶ 소유권 등기 미완료된 주택 有 ▶ 기존 금융회사와의 약정이 체결되어 대환이 불가
역전세 반환대출	▶ DSR 규제가 미적용되는 상품 ▶ 특정 기간 내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만 대출 가능
복수물건 담보부 대출	▶ 대출이동 처리시 다양한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 * 예: 복수 담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, 복수물건 담보부 기존 대출 이외에 개별물건 담보부 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등
주택금융공사 대출 (보금자리론 등)	▶ 금융회사에서 취급 후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회사 간 이동 불가
□ 전세대출 관련	
주택도시기금 대출 (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)	▶ 자격심사를 거쳐 제공되는 저금리 상품으로,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(대출비교시 오히려 고금리 대출 선택 우려)
지역연계 전세대출 (지자체 협약 대출)	▶ 지자체 이차보전협약 등에 의한 저리 대출로서, 협약한 금융기관만 취급 가능

2

참여 금융기관

◇ 기존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참여, 보험업권 신규 참여(신용대출 미참여)

□ (아파트주담대) 기존대출 상환가능 32개사, 신규대출 가입가능 18개사*

* 수협은행은 '24.하반기 중 비대면 신규 대출상품 출시 예정

○ 참여 금융회사(32개사)의 주담대 잔액은 소금융권 주담대 잔액 중 86.8%('23.9월말 기준)

< 주택담보대출 참여 금융기관 >

은행(18)	농협, 신한, 우리, SC제일, 기업, 국민, 하나, 대구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, 케이, 카카오, 수협, 산업, 씨티	659.5조원
보험사(10)	삼성생명, 한화생명, 교보생명, 농협생명, 흥국생명, 푸본현대생명, 삼성화재, KB손보, 농협손보, 현대해상	49.6조원
제2금융(4)	저축은행(SBI, JT친애, OK), 현대캐피탈	3.1조원

※ 굵은 글씨 표시 기관 : 신규대출 상품 가입도 가능한 기관

□ (전세대출) 기존대출 상환가능 21개사, 신규대출 가입가능 14개사*

* 국민은행('24.2월), 제주은행('24.2월) 비대면 신규 대출상품 출시 예정

○ 참여 금융회사(21개사)의 전세대출 잔액은 소금융권 전세대출 잔액 중 96.1%('23.9월말 기준)

< 전세대출 참여 금융기관 >

은행(18)	농협, 신한, 우리, SC제일, 기업, 국민, 하나, 대구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, 케이, 카카오, 수협, 토스, 씨티	161.5조원
보험사(3)	삼성생명, 삼성화재, 롯데손보	0.8조원

※ 굵은 글씨 표시 기관 : 신규대출 상품 가입도 가능한 기관

⇒ ❶ 기존대출 상환가능 기관*의 대출은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모든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조회 가능

* 아파트주담대 32개사, 전세대출 21개사

❷ 신규대출 가입가능 기관*의 상품은 해당 금융기관이 제휴한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해당 금융기관의 앱에서 조회 가능

* 아파트주담대 18개사, 전세대출 14개사

□ **(대출비교플랫폼)** 주담대 7개, 전세대출 4개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환대출 비교·추천서비스 제공

○ 당초 참여의사를 표명(9.25일)한 주담대 19개, 전세대출 16개 대출비교 플랫폼 중에서,

- 전산개발 완료, 제휴사 확보 등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부터 순차 개시*

* 그 외 대출비교 플랫폼은 전산개발·제휴사 확보 등 서비스 제공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후 순차적 참여 예정

< 주담대·전세대출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>

주담대(7)	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, 토스, 핀다, 핀크,뱅크샐러드, 에이피더핀
전세대출(4)	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, 토스, 핀다

□ **(금융회사)** 주담대는 16개, 전세대출은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에서 대환대출 비교·추천서비스 제공

○ 각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금융회사의 앱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,

-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

< 앱에서 주담대·전세대출 대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>

주담대(16)	(은행) 신한, 국민, 우리, 하나, 농협, 기업, SC제일, 대구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, 케이, 카카오, (보험) 삼성생명
전세대출(14)	(은행)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기업, SC제일, 대구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케이, 카카오, 수협

⇒ 향후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*를 맺어 상품을 제공하거나, 자체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지속 증가할 예정

* (예) 신용대출 대환플랫폼 제휴 금융회사: (6.20) 26개 → (12.22) 48개

① **(대출비교)** 고객은 대출비교 플랫폼(또는 금융회사 앱)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금융회사 상품과 비교, 편익이 큰 상품 선택

○ 고객은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* 및 금결원 제공정보(대출이동 중계시스템)을 활용하여 기존 대출 정보 확인

* 해당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사전 가입시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

○ 대출비교 플랫폼은 제휴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환대출 상품과 기존 대출 간 비교*를 통해 연간 절약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등 고객의 의사결정 지원

* 상품별 금리, 중도상환수수료, 금리변동주기 등을 고려

※ **주의사항**

- 주담대의 경우 신용대출에 비해 만기가 길고 금리구조(혼합, 변동 등), 상환 방식(만기일시, 원리금·원금 균등, 거치여부 등) 등 다양한 상품 형태가 출시 되는 만큼 차주가 대환시 직접 유·불리를 보다 면밀하게 비교할 필요

⇒ 대출상품 비교·추천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및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

② **(대출심사)** 고객은 필요에 따라 앱 또는 영업점*을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(서류)를 제출, 접수 이후 심사 개시

* (앱) 소득·자산·직업 관련 서류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비대면 일괄 제출 가능 (영업점) 상담전화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방문 가능한 지점 등을 안내

○ 금융회사의 심사절차·신청수요·인력상황 등에 따라 통상 2~7일 소요

* 본점 또는 영업점의 심사 담당 직원이 직접 소비자 정보를 검증·심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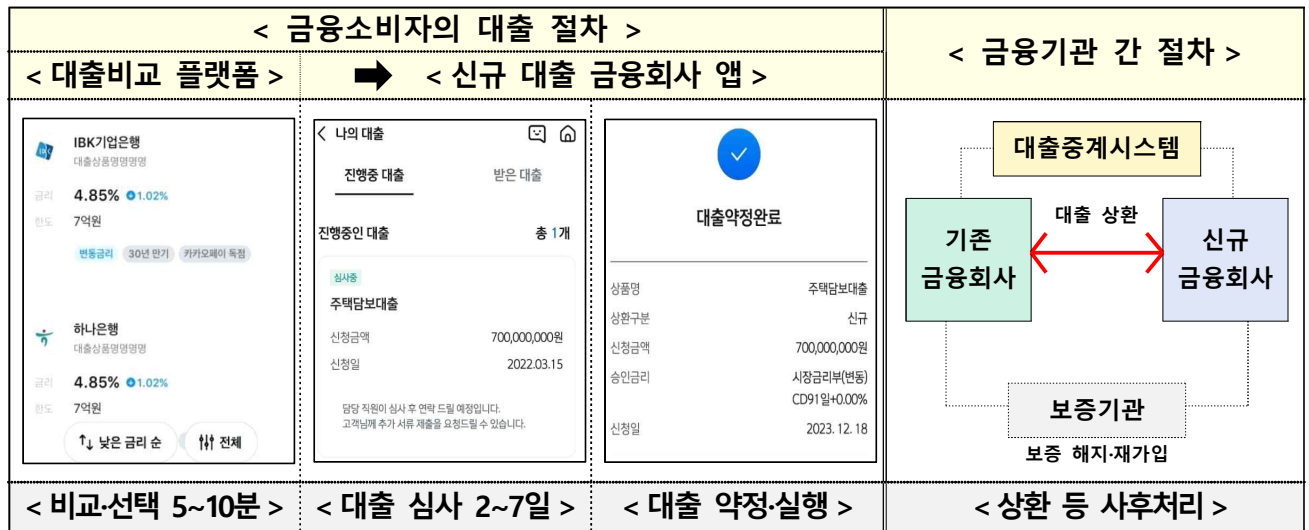
③ **(대출실행)** 심사가 끝난 소비자는 대출조건 확정, 금융회사는 앱·영업점에서 소비자가 약정한 대출을 실행

④ **(사후처리)** 금융회사간 기존대출 상환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에서 중계하여 안전하게 처리*

* 기존에는 신규은행 측 법무사가 대출금을 지참해 기존은행을 방문해 상환함에 따라 횡령 리스크 존재(실제 횡령 사례 : 대구지법, 2014가합8442 판결)

- (보증) 전세자금대출의 대환을 위한 대출보증·반환보증의 해지 및 재가입 등도 상환 시 신규 금융회사에서 함께 처리

< 주담대·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흐름도 >



5 서비스 시행시기 및 이용 가능시간

- 참여기관 전산 연동 테스트, 연말·연초 업무량 증가 및 안정적 서비스 운영 등을 감안, 주담대·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**1월중 순차 개시**
 - (주담대) **1.9일(화)** 개시
 - (전세대출) 1월중 전산개발 및 테스트 완료 → **1.31일(수)** 개시
- 매 영업일 **09시부터 20시까지** 주담대·전세대출 대환 인프라를 통해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 가능
 - * 신용대출의 경우 조회 후 15분 내 결과까지 조회되는 방식으로, 당일 내 마감을 위해 은행 영업시간(09:00~16:00)으로 설정
- 대출 신청은 통상 0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나, 금융회사별 업무 처리 시간에 따라 상이
- 주담대·전세대출은 심사 등에 2~7영업일이 소요되는 바,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가능 시간을 길게 설정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

① 금융소비자 보호

□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

-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, 비교·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실시*

* 금소법 상 코스콤 검증 외 금보원·금결원에 의한 교차검증, 중요사항 변경 시 재검증 등

□ 금융소비자에 대한 플랫폼 중개수수료*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시

* 금융회사가 신규대출 중개의 대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

- 각 플랫폼 사업자는 금융업권별 중개수수료율의 최저, 최고치와 가중평균 등을 정기적으로 플랫폼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*

* 실효성 있는 공시를 위해 플랫폼 중개건수가 일정 기간 누적(예: ~'24.2분기)된 이후 시작

② 리스크 관리방안

① (한도) 금융회사별 연간 주담대 취급한도 설정(전세대출 한도 없음)

- 주담대 취급 실적을 모니터링하면서, 필요시 한도 재산정

② (증액) 대환가능 금액은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으로 제한 →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만 허용

* 예: 기존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경우, 대환시 한도는 잔액(2억원)으로 제한

① 중도상환수수료, 잔여이자 등 대환에 필수적인 제반 비용을 상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액 가능

②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전세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,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을 허용

③ (만기) 만기 확대(DSR 하락)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 여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,

* 예: 기존대출(30년 만기)를 7년간 상환(잔여만기 23년) 후 대환시, 최대 만기는 30년(40~50년 만기상품으로 연장 불가)

○ 대환시 기존 대출의 약정만기 내 대환만 허용

④ (대환가능기간) 인프라 개시 초기 과도한 대출 이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, 기존 대출 실행 후 대환 가능기간 제한

○ 주담대의 경우 기존 대출 실행 이후 6개월 경과 후부터 대환

○ 전세대출은 빈번한 이동 우려가 적고, 임차계약기간 1/2(통상 1년) 이후 대환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3개월 경과 후부터 대환

⑤ (모니터링) 금결원, 금감원, 협회 등과 대환대출 인프라 관리 TF를 구축하여 이용상황 모니터링, 한도 관리 등 실시

○ 금융회사 업무처리매뉴얼을 마련하여 담당직원 사전 교육

○ 서비스 초기 대환시스템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금결원, 금융회사, 플랫폼 간 트래픽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

○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협조하여 대응

IV. 기대효과

- ◆ 현재의 제한된 **시장 참여자와 상품, 경쟁 범위**를 대폭 확대, 주담대·전세대출 **대환대출 시장 경쟁**을 본격적으로 촉진
 - ➡ 소비자의 편의 제고 및 금융회사·핀테크사의 상생기반 조성

□ **(소비자)** 정보 부족·대출이동 불편으로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잠금 효과*를 해소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후생 개선

*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비용(switching cost)이 높아 불가피하게 기존 선택을 유지

○ **(주담대)** 대출금액 규모가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커, 직접적인 이자절감* 및 경쟁 촉진에 따른 2차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

* '24.1.4일 기준 총 105,696건의 대출이동(신용대출)을 분석한 결과, 금리가 인하된 소비자의 평균 금리하락 폭은 약 1.6%p, 총 연간 이자절감액은 508억원 수준

○ **(전세대출)** 대환대출 경쟁이 최초 도입, 지속적인 금리경쟁 시스템의 마련으로 서민들의 주거금융비용 경감

□ **(금융회사)** 새로운 영업기회 창출, 업무 처리비용 절감

○ 주택 관련 대출 갈아타기 시장의 창출로 영업기회 확대, 기존 대환업무에서 발생하는 시간·비용* 절감

* (심사단계) 기존대출의 압류·연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따른 소요시간
(상환단계) 상환금액·계좌 관련 서류 징구 및 처리 등을 위한 수작업 및 처리비용

□ **(핀테크사)** 사업영역 확대, 이용고객 증가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

○ 신용대출보다 규모가 큰 주담대·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수익성 개선

○ 신규 고객의 증가로 플랫폼 활성화, 장기 경쟁력* 제고

* 대환대출 이용을 위해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는 플랫폼 내 타 서비스의 잠재 고객